

‘5년째 표류’ 광주 구간 경계조정 다시 ‘시동’

23일 서창 한옥문화관에서 민선 8기 첫 회의
 정부 심의만 6개월, “총선 앞두고 시간 빠듯”
 “기형적인 선거구, 인구·재정 불균형 해소책”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지역 구간 경계 조정이 민선8기 들어 다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다.

기형적 선거구와 인구·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심의에만 6개월이 걸리고 차기 총선까지 시간적으로도 빠듯한데다 일부 지역 반발도 우려돼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창 한옥문화관에서 행정구역(구간 경계조정) 개편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선8

기 들어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는 첫 회의로, 강기정 시장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고 5년째 중단 상태다.

민선7기에 기획단을 꾸려 논의가 재개됐고, 2020년 11월 북구 6개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

종안이 확정됐으나, 또 다른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종안인 소위 ‘중폭안’으로, 북구 다선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 경계조정은 자치구간 인구·재정·복지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44만6012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10만2936명)와 북구(42만6329명)의 격차는 4배에 이르고, 예산도 동구는 2977억 원에 그친 반면 북구, 광산구는 각각 8026억 원과 7043억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남구에 살면서도 총선에서는 동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동남갑·을’ 사례에 비해 기형적 선거구를 정상화하

는 계기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문제는 주민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광산구 첨단1·2동, 북구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두암1·2·3동 등 광산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회가 최종안을 의결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심의에만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돼 2024년 4월 총선전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달 18일 광주시장 당선인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구간 경계조정은 계획된 도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거가 없는 시기에 매듭을 지을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자”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요금 더 내고 탈 의향있다” ‘심야 택시대란’ 해소 탄력요금제 묘수 될까

최근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탄력요금제가 장기화하는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많을 때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적은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늦은 귀가길 택시 수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발표에 상당수 직장인들은 택시가 잘 잡히지만 한다면 적정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A(24)씨는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직장인들 대부분은 오직 ‘빠른 귀가’가 목적”이라며 “일단 택시 귀가를 결심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닌 이상 비용 측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택시가 잡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B(32)씨도 “간혹 정말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정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강남 같은 곳이 유독 심하니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요금을 차등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야 할증료에 탄력요금제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다. C(30)씨는 “요금 올린다고 한들 소비자 가격 부담만 커지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탄력요금제가 법인 택시기사에게 야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고질적인 ‘기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당근책 또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승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승차난을 해소하려면 기사를 충분히 멈춰있는 법인 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탄력요금제 정도도 안 되고, 근본적인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다시 활력’ 무안국제공항, 국내외 노선 잇달아 운항재개

김영록 지사 “서남권 관문공항 성장 적극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무안-다낭’ 국제선 운항 재개 취항식 행사에서 기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국내외 노선 운항이 잇달아 재개되면서 다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4개월 동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베트남 다낭 주 2회 운항 정기노선 출발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태국 방콕을 주 2회 오가는 정기노선도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김이배 대표이사는 “국제선 약 1만400여편 중 51%를 차지하는 제주항공이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의 대표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취항을 적극 검토해 전남지역 관광객 방문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제주항공에 이어 베트남 비엠펙항공, 몽골 훈누에어 등 외국계 항공사들도 베트남 달랏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부

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어서 국제선 노선이 총 7개로 확대된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회 운항하던 제주와 김포 노선이 지난달 25일부터 주 3회로 증편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울산 노선도 7월 1일부터 주 2회 운항을 재개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당부했다.

또 면세점과 출국장 등 공항 각 시설을 둘러보며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공항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세계적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공항처럼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제15회 정남진 강릉 모듬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